

세상을 사는 이유 (하)

이권상 (충북 영동군 영동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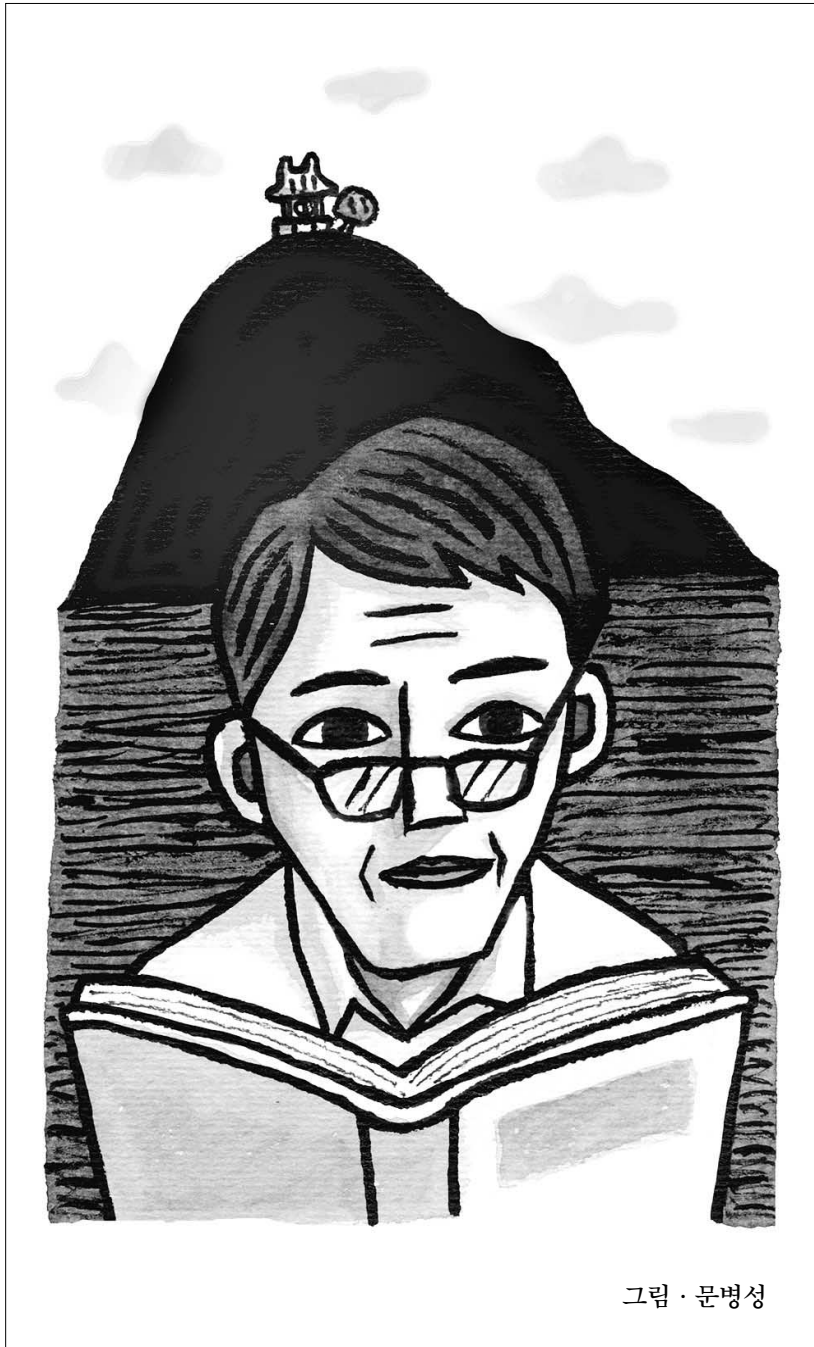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지체장애, 가족과의 불화, 직장 문제 등 여러 가지 고통들을 솔로 해결하며 살아 온 내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러면서 '나 하나는 괜찮지만 아이들과 아내가 무슨 죄를 지어 고통을 받으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 들어가지기 시작했다.

'그래! 괴롭고 고통스런 나를 부처님께 맡기자' 이렇게 부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75년도에 중앙불교대학에 입학하여 재무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다. 그러나 솔 때문에 졸업은 참으로 어렵게 했다.

대학을 졸업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다. 내 삶을 바꿀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께 나를 맡기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민 끝에 나는 평생에 해야 할 두 가지를 정하고 서원을 세웠다. 하나는 솔을 끊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1998년 직장을 시골(충남 장항)로 옮기면서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루의 일과를 아침 3시 30분에 기상하여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고 마음공부를 위해 병상일기를 쓰는 심정으로 일기를 쓰며 오전을 보내고 직장에 나가 업무를 하고 퇴근 후에는 저녁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하니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하는 듯 했다.

물론 이 기간동안 금주를 했다. 직장을 옮기고 회사자리에서 2년 정도 술을 약간 먹은 것 이외는 금주한 것이다. 이것도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다. 금주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다. 그러나 아상에 집착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려서고 힘든 살인가를 부처님께서 보여 주시게 시작했다.

장항에서 생활한 지 정확히 두 달 후에 큰 아이 (당시 고등학교 2년)가 '기흉'이라는 병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세 번이나 하는 아픔을 겪었다. 하루라도 빨리 학교에 나가 공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어 처음에 공기만 빼는 수술을 했는데 재발되어 두 번, 세 번의 수술이 이어지고 3개월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큰 아이는 가고 싶은 대학을 포기했다. 대학보다는 우선 건강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절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부처님을 원망했다. '부처님! 세상에 장애자로 태어나서 주위로부터

간의 병인 생활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무엇보다도 수술대 위에서 죽음을 보았고 내 진실한 주인공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다. '죽으면 없어질 몸통이라, 죽으면 없어질 영혼, 죽으면 모든 것이 내것이 아닌 것을 살면 얼마나 산다고 집착하고, 분노하고, 업으려 했을까'

비로소 아상을 놓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집착에서 벗어나니 그렇게 마음이 시원할 수가 없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제행무상인 것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자신을 자학하고 분노하고 사람들을 미워했던 말인가? 일순 노여움과 미움이 사라지고

구해주시는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가피 덕인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후부터 7년 만에 술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평범한 다른 사람처럼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하며 행복해 살고 있다. 큰 아이는 대학에 입학해 1년을 다니다가 군복무를 마친 뒤 복학을 했고, 둘째도 대학에 입학하여 어느새 졸업반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가정화합을 이루어 냈으며 내 건강을 되찾은 일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야 하는 당위성, 바로 '꿈'을 되찾은 것이다. '정년 때까지는 가정을 위하고 그 후부터는 나보다 못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는 것이 나의 소박한 꿈이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세무사 공부를 하고 있다. 재력 없이 마음만 뒤따르는 봉사는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체장애자가 할 수 있는 봉사는 육체적인 것이 아닌 지적인 도움이고, 물질적인 도움이라는 판단도 했다.

어려운 남세자들을 돕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 편에서 같이 고민하고 괴로움을 나누는 것 참으로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 비록 지금은 소책자 마을과 너무나 작은 인연을 맺고 있지만 반드시 좀 더 큰 인연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병원생활하며 참회 눈물 흘려 7년 만에 술에서 해방, 가족들 웃음 되찾아 어려운 이웃 돕기 결심... 세무사 공부 시작

온갖 냉대와 멸시를 이 정도 받고 살면 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제게 주시는 것입니까? 전생에 얼마나 많은 업보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힘들었다. 결국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고 다시 술을 먹기 시작했다. 아들은 아파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매일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병원을 방문할 때도 술에 취해 있었으니 나를 바라보는 집사람과 아이들의 심정은 오죽 했을까.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런 일이 있다고 솔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음을 솔이 깨서는 깨닫고 했지만 퇴근 무렵이면 다시 모든 것이 귀찮고 오직 술만 생각이 났다.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그리고 술이 깨 때쯤이면 속이 너무 쓰러 해장술을 하지 않으면 못 견뎠다. 이미 알콜중독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스스로 술을 제어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1999년 4월에 교통사고를 당해 좌측 대퇴부 수술을 받았다. 10주

눈물이 흘러 내렸다. 분명 참회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1999년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다. "알콜중독자 이권상은 1999년 12월 31일자로 죽어 땅속에 묻혔노라"고.

2000년 1월 1일부터 술을 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해보면 1994년부터 1999년 까지 6년 동안 위기 속에서 살았고 자칫했으면 인간으로서의 생을 포기한 삶이 되었을 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10년 동안 병상일기처럼 써 온 일기는 수행일기가 되었고, 나를 돌려놓은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피덕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으며 그것을 찾으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을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작곡자답게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수행기록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수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수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한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 없는 현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5,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운명학 디지털세상!

해당되는 버튼만 누르면 운세의 내용이 척척

◆실전사례 : 정오일 오시(午時)에 고객이 왔을때 먼저 옆의 그림과 같이 말의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운세의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첫 마디 : 현재의 운세는 몸이나 가정이 쇠퇴하고 반복되는 일이 자주 있으며 모든 일에 지체가 되거나 실패의 일이 있는데 범의 날짜, 양의 날짜, 개의 날짜가 될 때 뜻하는 일은 이루어지는데 혹은 재물이나 여자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음력 1,6,9월이나 또는 범띠, 양띠, 개띠의 사람과 마음이 일치하는 일이 있으며 문서, 계약, 시험의 일도 이런 날짜 및 사람의 띠가 이러할 때 반드시 즐거움이 있다.

디지털 운명학 CD의 탄생과 함께 변화된 사례들

1. 운세에 대한 배움이 필요없고
2. 구입 즉시 상담이 가능하고
3. 길흉이 되는 날짜 및 사람까지 알 수 있어 적중률에서 으뜸이고
4. 인터넷을 통하여 상담을 할 수 있어 확실한 수입이 보장된다. (무로 3개월)

▶ 5,000년만의 공개되는 버튼식 형태의 운명학 CD의 4형제 [가격 및 형태]

육입화	수리화	행년화	일진화
300만원 [버튼식]	200만원 [버튼식]	200만원 [버튼식]	200만원 [버튼식]

● 구입처: 옥두교육문화센터 (계좌 : 농협 235086-56-150084 예금주: 최규섭)
(3일내 배송완료, 제품반환시 상품도착후 1주일내 반드시 키락 통보)

운세의 배움이 전혀없는 사찰의 스님, 상담에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 운세박사가 될수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미래를 앞서가는 사람들 1577-1622

WWW.운세와미래.COM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성불에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최고의 금강염주! 주성분인 금강염주는 북한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망이 생산되며 이곳은 원호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에서 국내 독점으로 반입, 조립 시판하며 화해와 성공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스님 및 불자님께서 효능을 인정하시며 모든 분께 최고의 선물로 추가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기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맑은 영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기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기도 정신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시며 기쁨을 받으실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분
-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 수행생 자녀를 둔 부모님
-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강염주를 성원해 주신 모든 스님 및 불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1세트 가격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108염주, 12단주, 손목염주	225.000원

입금규좌 : 농협 743-02-563237 (정혜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무제한 통화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배송비도 무료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흥 8/D 406호

열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므로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